

“혁신·협업으로 UV LED 생태계 확산”

〈자외선 발광다이오드〉

LG이노텍 박종석 사장

내년 광출력 200mW급 개발 목표

LG이노텍이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 LED)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에 나선다.

박종석 LG이노텍 사장은 7일 서울시 중구 LG서울역빌딩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V LED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광원”이라며 “소중한 가치가 있는 만큼 시장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V LED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첨단 반도체 광원이다. 살균용 UV LED의 경우 화학약품이나 중금속 없이 자외선 빛으로만 세균·바이러스를 없애 친환경적이다.

강동현 서울대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LG이노텍 지난해 개발한 광출력 100밀리와트(mW) 살균용 UV LED는 3.4초만에 살모넬라균을 99.9% 제거한다. 대장균 등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박종석 LG이노텍 사장

/LG이노텍

제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이노텍은 올해 광출력 150급 살균용 UV LED를 개발하고 내년에는 200mW급까지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개발에 성공하면 지난해 선보인 100mW 세계 최고 광출력 기록을 스스로 뛰어넘게 된다.

살균용 UV LED는 광출력이 높을수록 강력한 살균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조사업체 올디벨먼트에 따르면

글로벌 UV LED 시장은 2016년 5190만 달러(약 1624억4200만원)에서 2021년 11억1780만 달러(약 1조1953억7500만원)로 7배 성장이 예상된다.

B2B(기업간 거래) 기업인 LG이노텍은 UV LED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 기업들이 다양한 UV LED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R&D부터 평가·인증, 글로벌 홍보, 역량 강화까지 ‘사업화 토탈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LG이노텍은 세계 최고의 UV LED 기술력으로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 인력 등의 부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협업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UV LED 응용 제품을 발굴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이노텍은 이날 UV LED 최신 기술 및 제품 개발 동향을 공유하는 ‘UV LED 포럼’을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했다.

/정은미 기자

대유그룹, CI 변경 글로벌 기업 강조

3대 종합가전기업 정체성 재확인 ‘세계로 가는 문을 열다’ 의미 담아



최근 대우전자(옛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대유그룹이 그룹 통합 CI(기업이미지)를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CI 변경은 대우전자 인수를 계기로 국내 3대 종합가전기업으로 도약한 만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뤄졌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CI 심볼은 대유(DAYOU)의 ‘D’를 닮았으며, 알파벳 D의 형상 왼편에 문을 열어놓은 듯한 형상을 심볼화했다. ‘세계로 가는 문을 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색상은 블루톤으로 통일했다. D 디

자인에 쓰인 네이비 블루는 산뜻한 쪽빛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감청(紺靑) 또는 아청(雅靑)이라 해서 남색 계열 중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블루계열의 컬러는 신뢰, 믿음을 뜻하기도 한다.

D 왼편 문 색상은 스카이 블루다. 네이비 블루보다 밝은 색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유그룹의 밝은 미래가 열린다는 의미를 담아 디자인됐다.

CI는 대우전자와 대우전자서비스를 포함한 그룹 전 계열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캐논코리아 “미러리스 카메라로 4K 영상촬영 하세요”
서 신제품 미러리스 카메라 ‘EOS M50’을 선보이고 있다. ‘EOS M50’은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4K 영상촬영 및 최신 영상엔진 ‘디지 8(DIGIC 8)’을 탑재하고, 진화한 듀얼 픽셀 CMOS AF(오토포커스)로 AF영역이 더욱 확대돼 고속, 고정밀의 AF를 경험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손진영 기자 son@

‘라이언이 손목에’... 어린이전용 AI 탑재

LGU+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

실시간 위치·통화·사전 서비스 등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를 접목시킨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는 AI 서비스가 탑재된 어린이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부모는 스마트폰에 ‘U+가족지킴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키즈워치를 컨트롤 할 수 있다. 특히 ‘나에게 전화’ 기능은 아이가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아도 키즈워치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는 기능으로, 언제든지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실시간 위치와 발자취 확인, 안심지역 이탈 알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녀의 길 잃음, 위급상황에 대비한 ‘긴급호출’ 모드도 유용하다. 아이가 키즈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부모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림음과 함께 현재 위치를 전송한다.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는 LG유플러스에서 자체 개발해 상용화한 음성 AI 플랫폼을 통해 일상대화, 한영사전, 날씨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최초로 AI 서비스를 ‘아이 목소리’로 제공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가 음성을 기본 제공하며, 추가로 12종의 다양한 음성을 선택할 수 있다. 키즈워치 구성품으로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귀엽고 유풀하게 반영된 손목줄과 더불어 목걸이형 케이스와 액정필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장식을 제공한다. 출고가는 27만5000원(부가세 포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힘이 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신용 NH농협카드

대한민국
행복꿈틀

세계인이 모여 축제가 펼쳐지는 2018년

대한민국의 꿈도 농업의 꿈도 NH농협이 응원합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 - NH 농협